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박미정* · 유난숙**1)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장학사*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생활과학연구소**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its related variables

Park, Mi Jeong* · Yu, Nan Sook**1)

*Supervisor, Icheon office of education of Gyeonggi Provinc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life satisfaction, accomplishment value, peer attachmen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in three time points.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who completed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0, 2012, and 2014. Descriptive statistics used included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in addition, reliability, repeated measure ANOVA, and regression results were reported using SPSS stati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ed that the longitudinal changes of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ccomplishment value, peer attachmen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three time points. Second, longitudinal changes in adolescent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peer attachment,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differed by gender, but accomplishment value did not. Third, life satisfac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to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was the second most influential in the three data sets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parents' academic attainment, and residential area. The influence of life satisfaction on self-esteem decreased across the three time points, but that of peer attachment increased over time. Instruction on life satisfaction and peer attachment needs to be more highlighted in Home Economics classes to enhance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Key words: 자아존중감(self-esteem),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성취가치(accomplishment value), 또래애착(peer attachment), 교사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teachers),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1) 교신저자: Yu, Nan Soo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The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4, Fax: 062-530-2529, E-mail: nansooksb@gmail.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았다(Chun, 2014; Heo & Yu, 2012; Kim, 2012; Koh, 2012; Moon, 2012). 이와 같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이유는 행복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Seo(2014)는 행복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모든 일상의 노력은 삶의 최종 이유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매우 비과학적인 사고라고 반박하면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였다. Seo(2014)는 행복 분야의 여러 연구들로부터 얻은 결론은 행복의 절대 조건은 ‘사람’이며, 이때 ‘사람’이란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함께’ 사는 모습이다. 또한 Choi(2014)는 논어의 「학이」편을 인용하면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학생 개인의 유일성과 독창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자아존중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이야말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자살(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인 우리나라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동안 발달하고 형성되는 것으로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Kim & Lee, 2010), 청소년이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Duclos, 2004; Heo, 2014).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은 청소년기 발달특성상 경험하게 되는 발달적 스트레스 뿐 아니라 대학입시중심의 획일적인 사회와 학교 문화 속에서 지나치게 학업과 경쟁에 매몰되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Lee, 2003).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00점 만점에 74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한 ‘2014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결과(Segyeilbo, 2014)는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인식,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삶의 만족도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고(Shin, Jeon, & Yoo, 2010), 성취 가치는 학습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태도나 가치를 부여하는가와 관련되며(Heo, 2014), 특히 학업성취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청소년은 가정 뿐 아니라 또래집단, 학교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반면,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받지만 또래지나 지역사회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위축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Kim, 2012),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지지의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umgardner & Crothers, 2008).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래예찬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Park, 2010; Shim, 2003; Suh & Yoo, 2001). 또한 교사와의 관계는 단순히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지식 전달의 관계를 넘어 미래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Kim & Jung, 2012; Park, 2010).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예찬, 교사관계 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가정교과는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직면하게 될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는 실천교과이다(교육부, 2015).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기에 그 기초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도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9기가01-01]과 [9기가02-03]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가정과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면 가정과교육의 성취기준은 물론 가정과교육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가정과교육 분야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가족요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Cha & Lee, 2014; Hyun, Shin & Lee, 2014; Kim & Lee, 2010; Lee, 2014), 체형 인식이나 비만 등과 관련된 변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Chung, 2007; Kim & Jang, 2009; Kim & Kim, 2009; Lee, Auh, Jung & Kim, 2012) 등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탐색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분리하여 살펴본 것이다(Kim & Lee, 2010; Oh, 2010).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횡단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정지된 삶의 단면만을 다루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항상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변화, 사고능력의 발달, 대인관계의 확대, 학업에 대한 부담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과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전 생애동안 발달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변인(Kim & Lee, 2010; Park, 2015)이기에 종단 연구를 통해 발달 추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가정과교육 과정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가정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과정에 반영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한 가정과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종단적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종단적 추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가?

셋째,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종단적 추이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은 자기인식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게 판단하는 자아개념이다(Park, 2015).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연구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5; Oh, 2010; Park,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2014)의 연구 등이 있다.

Lee(2005)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를 살폈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Oh(2010)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외모만족도, 내외통제성, 역량지각), 환경적 요인(가족환경, 학교환경)별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모만족도, 역량지각, 부모의 갈등인지도, 친구와의 관계였다.

Park(2015)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성적, 부모 애착, 친구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모 스트레스, 부모 학대 변인은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와 Kim(2014)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 특성을 개인변인(외상경험, 여가활동, 진로성숙), 가족변인(가족구조, 빈곤여부, 모취업여부, 부모애착), 학교변인(성적, 공부압력, 또래애착, 교사애착), 지역사회변인(지역사회 애착, 지역사회 감독,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별로 알아 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시기의 남학생 특성은 부모애착, 성적, 공부압력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특성은 진로성숙, 빈곤여부, 부모애착, 성적, 공부압력,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 특성으로는 남학생 집단에서 외상경험, 진로성숙, 부모애착, 성적, 공부압력, 또래애착, 교사애착, 지역사회 애착, 지역사회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Lee, 2010)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요인,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통해 느끼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살핀 Kim & Yun(2016)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년부터 초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청소년 삶의 만족도 초기치와 변화율에 자아존중감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Lee(2010)은 중학교 2학년(200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2007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의 종단적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자아효능감, 여가만족도,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여학생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모든 학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자아효능감이었다. 자아효능

감(self-efficacy)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이나 확신의 정도로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 Yun과 Lim(2016)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사결정 나무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우울, 진로정체감, 주의집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나. 자아존중감과 성취가치

성취가치는 주어진 학습이나 활동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Eccles와 Wigfield(2002, Lee, 2014 재인용)는 기존의 성취동기, 즉 합리적 행동이론이나 자기효능감 같은 기대요인만으로는 학습에 대한 동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성취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제에 몰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ccles와 Wigfield(2002, Lee, 2014 재인용)의 기대-가치이론에 근거한 성취가치는 달성 가치, 내재적 가치, 효용 가치, 비용가치로 구분한다. 달성 가치는 성취가 주는 주관적인 중요성의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재적 가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효용 가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개인의 미래 계획에 얼마나 적합하고 필요한지를 의미한다. 반면에 비용 가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 정서적인 소모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취 가치를 결정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Lee, 2014).

중학생의 학업에 대한 성취가치와 학업성취 관계에서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살핀 Heo(2014)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성취 가치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취 가치와 학업성취 사이에서 다중 매개적 효과를 나타냈다.

서울 및 지방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Choi & Oh, 2010)에서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학업 성적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반영하여 성취 가치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다.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시기이다. 따라서 또래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또래애착은 학자에 따라 교우관계, 친구관계, 또래관계, 친구애착(Lee, 2010)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를 살핀 Lee(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던 친구 애착 변인은 예상과는 달리 고등학교 2학년에서만 미미한 영향력을 미쳤고, 나머지 학년에는 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im과 Yun(2016)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중 소외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 초기치와 변화율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초등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결과(Cho & Kim, 2016)에서도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함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Yang & Moon, 2012)에서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영향력이 큰 변인(No, Park, Yi, & Park, 2016; Park, 2014)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났다(Kim, Kim, & Kim, 2013; No et al. 2016).

한편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매개하는 요인을 연구한 Shin과 Choi(2016)의 연구에서는 중1→중3, 중3→고2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변인에 모두 교사-학생 관계가 나타나서 자아존중감과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Lee와 Lee(2015)의 연구에서는 교사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Jung(201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교사애착, 또래애착,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고,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를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교사애착,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에 또래애착과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본 연구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가정과교육과 자아존중감

가정과교육은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직면하게 되는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자아존중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행복한 가족 관계와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이끌어가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특히 가정과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발달을 이해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특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의 중학교 1~3학년에는 “[9기가01-01]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과 자신의 발달 특징을 연결 지어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이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도 ‘[9기가02-03] 의복 디자인의 요소, 자아존중감이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신체보호 및 자기표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을 실천한다.’는 성취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

의 가족요인과 자아존중감의 관계(Cha & Lee, 2014; Hyun, Shin & Lee, 2014; Kim & Lee, 2010; Lee, 2014; Lim & Lee, 2007), 체형인식이나 비만 등과 관련된 변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Chung, 2007; Kim & Jang, 2009; Kim & Kim, 2009; Lee, Auh, Jung & Kim, 2012) 등으로 특정변인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을 주로 횡단적으로 살펴보았다.

Lim과 Lee(2007)는 경기도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다른 요인보다 친구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Lee(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에 차이가 없었지만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달랐다. 즉, 남학생은 또래괴롭힘, 여학생은 부모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작용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Choi & Lee, 2003)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나 또래 애착은 여자 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Lee & Chun, 2012; No, Park, Yi, & Park, 2016; Park, 201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성별을 사용한 결과, 남자가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Cho, 2014; Han, 2014) 등 자아존중감의 성별에 따른

연구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성별로 그 특징을 비교하여 가정교육과정의 개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 KCYPS)의 중1 패널 자료 중에서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제1차(2010년), 제 3차(2012년), 제 5차(2014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의 청소년의 심리, 신체, 사회 발달에 관한 조사를 위한 패널 조사 연구이다. 중1 패널은 중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조사원이 개별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1 패널의 청소년은 2010년 1차년도 조사 시 원표본 2,351명, 3차년도(2012년) 2,259명, 5차년도(2014년) 2,091명이었다. 가구연간소득, 거주지, 부모 학력은 부모가 응답하였으며, 그 외 다른 변수들은 자녀가 응답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 50.0%(1,176명), 여학생 50.0%(1,175명)이며, 부 학력은 고졸이하 46.4%(1,005명), 전문대졸 이상 53.5%(1,163명)로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Variable | Category | Frequency (%) |
|---------------------|-----------------------|---------------|
| Gender | Male | 1,176 (50.0) |
| | Female | 1,175 (50.0) |
| Academic attainment | | |
| Father | High school and under | 1,005 (46.4) |
| | College and over | 1,163 (53.6) |
| Mother | High school and under | 1,340 (61.1) |
| | College and over | 853 (38.9) |
| Residential area | Urban area | 2,014 (85.7) |
| | Rural area | 337 (14.3) |

전문대졸 이상이 더 많고, 모 학력은 고졸이하 61.1%(1,340명), 전문대졸 이상 38.9%(853명)으로 고졸이하가 더 많다. 거주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85.7%(2,014명), 읍면지역 14.3%(337명)으로 도시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구성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정의한 요인과 문항내용을 참고하였고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관계의 측정도구는 모두 4점 척도이다. ‘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역산 처리하였고, 모든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 수준이 높은 정도를 의미한다.

가. 종속변인

종속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 설문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Behavior Science Research Institute(2000)에서 개발한 10문항이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으로, ‘*’표한 문항만 역산 처리를 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독립변인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Kim et al(2006)이 개발한 척도이며 즐

거움, 걱정없음, 행복감에 관한 총 3문항이다. 모두 역산 처리를 하여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성취가치

Yang(2000)에 의해 개발된 자기조절 학습능력 측정도구 54 문항 중 Kim(2006)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한 문항에서 성취가치를 다룬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역산 처리를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 또래애착

또래와의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olen과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를 번안, 수정한 Hwang(2010)의 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구성되었다.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 등 3항목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의사소통 항목으로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등이 해당되며, 신뢰 항목으로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소외 항목으로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등 총 9문항 중에서 소외 항목을 제외한 의사소통, 신뢰 2개 항목에 해당하는 6문항을 역산 처리를 하였으며, 또래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애착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4) 교사와의 관계

선행연구를 참고로 Min(1991)이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 중에서 교사관계를 측정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의 조사항목들의 Cronbach's α 를 알아본 결과 <Table 2>와 같이 .780~.893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변수별로 내적일치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성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을 선택하였다. 성별은 여학생=0, 남학생=1로 설정하고, 거주지역은 읍면=0, 동=1로 설정하고,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하=0, 전문대졸 이상=1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Cho, 2014; Han, 2014; Kim, 2013; Park, 2005)에서 청소년의 배경변인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성별을 설정한 연구들 중에 남자가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Cho, 2014; Han, 2014), 성별이 자아존중감과 관련되지 않은 연구(Kim, 2013)가 있어 자아존중감을 성별을 고려하여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Oh(2010)는 지역(소도시, 대도시)에 따라 살펴본 결과, 소도시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다소 높았다. Park(2005)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

으며, Han(2014)은 모의 학력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포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위한 기초통계와 일반선형모형(GLM)을 이용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포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종단적 추이가 성별에 따라 다른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선형모형(GLM)을 이용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였다. 개체 간 요인(Between-subjects)과 개체 내 요인(Within-subjects)이 통합되어 있는 분할구획요인설계(split plot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성별을 구획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관련 변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포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종단적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2. Reliabilities of the items

| Variables | N of item | Cronbach's α | | |
|----------------------------|-----------|---|---|---|
| | | 1 st grade of middle school (2010) | 3 rd grade of middle school (2012) | 2 nd grade of high school (2014) |
| Self-esteem | 10 | .839 | .815 | .858 |
| Life satisfaction | 3 | .814 | .815 | .780 |
| Accomplishment value | 7 | .893 | .889 | .875 |
| Peer attachment | 9 | .814 | .796 | .833 |
| Relationship with teachers | 5 | .827 | .841 | .795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실증적이고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KCYPS) 데이터 중에서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변인들의 종단적 추이

연구대상자들이 중1, 중3, 고2 시기에 각 학년에서 측정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4점 만점 리커트 척도에서 2.71~3.12로 분포되었다. 각 변인들의 수준이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따라 다른 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 통계값과 유의 확률은 <Table 3>과 같으며 모든 변인들이 시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자아존중감의 시기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F* 통계값은 55.61(*p*<.001)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도의 시기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F* 통계값은 3.95(*p*<.05)로 삶의 만족도가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취가치의 시기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F* 통계값은 75.23(*p*<.001)으로 시기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래애착의 시기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F* 통계값은 86.37(*p*<.001)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와의 관계를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F* 통계값은 83.41(*p*<.001)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종단적 추이의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을 구획변수로 하여 시기별 변수들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개체 간(Between-subjects) 요인은 성별이며, 개체 내(Within-subjects) 요인들은 중1, 중3, 고2 시기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관계이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별(*F*=12.38, *p*<.001)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시기별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F*=55.53, *p*<.001) 시간적 경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Figure 1>은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3개의 시기동안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중1, 중3, 고2 모든 시기에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별(*F*=39.04, *p*<.001)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가 성별

Table 3. Longitudinal changes in variables

| | N | 1 st grade of middle school (2010) | 3 rd grade of middle school (2012) | 2 nd grade of high school (2014) | F |
|----------------------------|-------|---|---|---|----------|
| | | M(SD) | M(SD) | M(SD) | |
| Self-esteem | 2,071 | 2.79(.502) | 2.82(.457) | 2.90(.449) | 55.61*** |
| Life satisfaction | 2,076 | 2.82(.728) | 2.85(.674) | 2.80(.591) | 3.95* |
| Accomplishment value | 2,037 | 3.06(.571) | 2.92(.581) | 2.90(.545) | 75.23*** |
| Peer attachment | 2,075 | 2.97(.498) | 3.04(.453) | 3.12(.431) | 86.37*** |
| Relationship with teachers | 2,040 | 2.71(.658) | 2.89(.624) | 2.90(.564) | 83.41*** |

p*<.05, **p*<.001

Table 4. Repeated ANOVA results of variables depending on gender

| Sources | SS | df | MS | F | |
|----------------------------|--------------------------|----------|-------|-------|----------|
| Self-esteem | Between-subjects effects | | | | |
| | Gender | 5.22 | 1 | 5.22 | 12.38*** |
| | Error | 873.06 | 2,069 | .42 | |
| | Within-subjects effects | | | | |
| | Three time points | 13.25 | 1.94 | 6.84 | 55.53*** |
| | Three time points*gender | .15 | 1.94 | .08 | .63 |
| Life satisfaction | Between-subjects effects | | | | |
| | Gender | 29.94 | 1 | 29.94 | 39.04*** |
| | Error | 1590.66 | 2,074 | .77 | |
| | Within-subjects effects | | | | |
| | Three time points | 2.18 | 1.95 | 1.09 | 3.95* |
| | Three time points*gender | 1.37 | 1.95 | .68 | 2.48 |
| Accomplishment value | Between-subjects effects | | | | |
| | Gender | .18 | 1 | .18 | .33 |
| | Error | 1,088.62 | 2,035 | .54 | |
| | Within-subjects effects | | | | |
| | Three time points | 31.52 | 1.98 | 15.89 | 74.44*** |
| | Three time points*gender | 5.64 | 1.98 | 2.84 | 13.32*** |
| Peer attachment | Between-subjects effects | | | | |
| | Gender | 15.23 | 1 | 15.23 | 42.61*** |
| | Error | 741.03 | 2,073 | .36 | |
| | Within-subjects effects | | | | |
| | Three time points | 23.46 | 1.96 | 11.96 | 85.80*** |
| | Three time points*gender | 2.75 | 1.96 | 1.40 | 10.07*** |
| Relationship with teachers | Between-subjects effects | | | | |
| | Gender | 6.65 | 1 | 6.65 | 11.42* |
| | Error | 1,187.97 | 2,038 | .58 | |
| | Within-subjects effects | | | | |
| | Three time points | 46.75 | 1.98 | 23.38 | 84.52*** |
| | Three time points*gender | 4.56 | 1.98 | 2.28 | 8.25*** |
| Error | 1,127.29 | 4,024.39 | | | |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시기의 주효과($F=3.95$,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나 시간적 경과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성취가치의 경우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아서 성취가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시기의 주효과($F=74.44$, $p<.001$)와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F=13.32$,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또래애착의 경우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별($F=42.61$,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또래애착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시기의 주효과($F=85.80$, $p<.001$)와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F=10.07$,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또래애착은 남녀 모두 시기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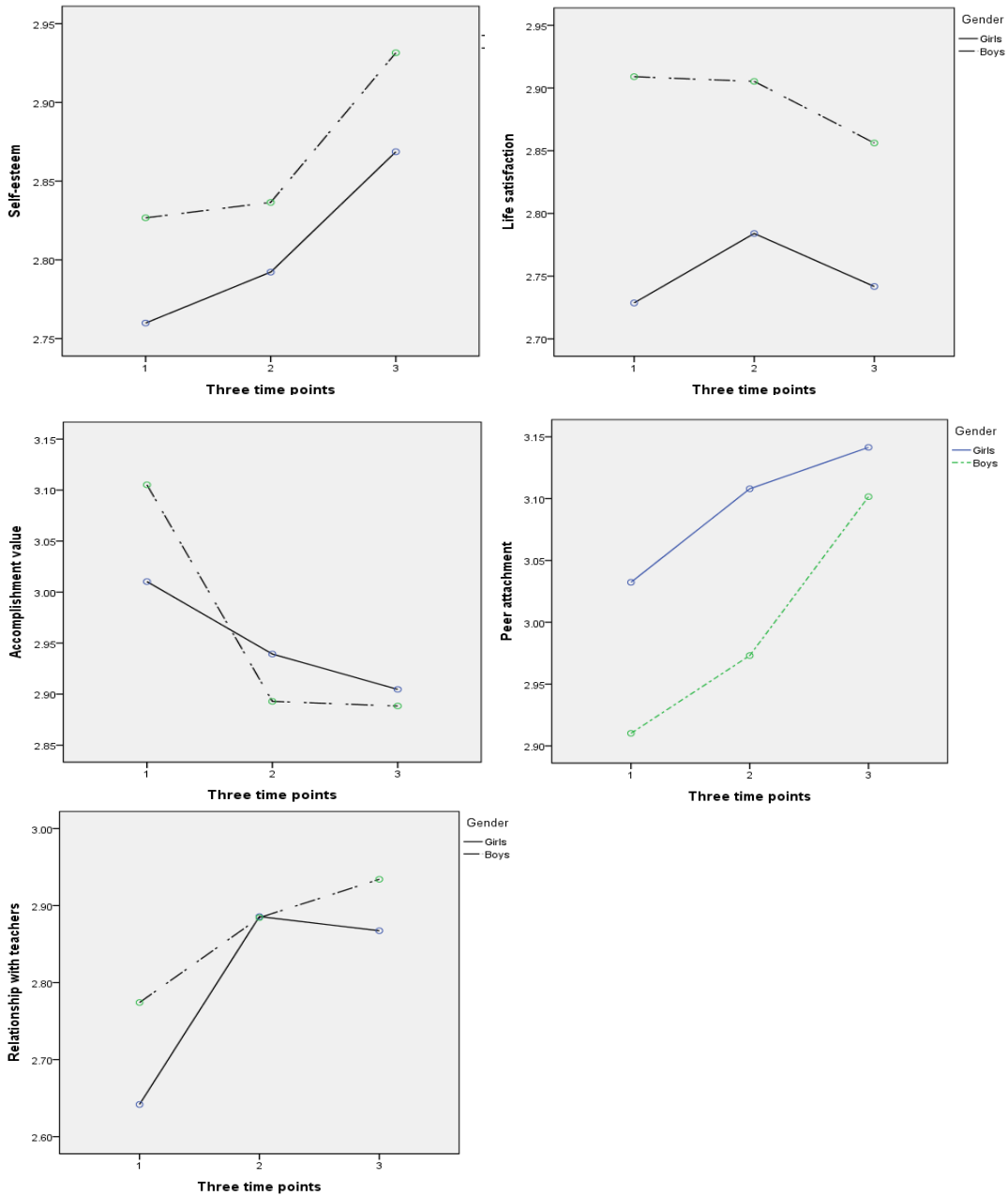


Figure 1. Longitudinal changes in variables by gender

Note. Three time points: 1, 1st grade of middle school; 2, 3rd grade of middle school; 3, 2nd grade of high school

교사관계의 경우 개체 간 효과 검정을 통해 성별($F=11.42$, $p<.05$)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시기

의 주효과($F=84.52$, $p<.001$)와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8.25$,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교사와의 관계의 경우 남학생은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여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시기에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관계 등을 성별에 따라 다른 지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교사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취가치는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개체 내 효과 검정을 통해 시기의 주효과를 알아본 결과, 모든 변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시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력의 종단적 추이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 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종단적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통제변인은 성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 학력, 거주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인 성별, 부모 학력, 거주 지역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성별(여학생 0, 남학생 1), 부모 학력(고졸이하 0, 전문대졸 이상 1), 거주 지역(읍면 0, 도시 1)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중3, 고2 시기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어머니 학력의 경우 중1, 고2 시기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 학력과 거주 지역의 경우 모든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공차한계는 모두 .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영향력은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성취가치, 교사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중1($\beta=.54$), 중3($\beta=.46$), 고2($\beta=.47$) 순으로 모든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경우 중1($\beta=.21$), 중3($\beta=.29$), 고2($\beta=.30$)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가치는 고2($\beta=.11$) 시기에만 자아존중감에 영향

Table 5. Longitudinal changes in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Self-esteem

| Variables | 1 st grade of middle school (2010) | 3 rd grade of middle school (2012) | 2 nd grade of high school (2014) | |
|----------------------|---|---|---|-----------|
| | β | β | β | |
| Control variables | Gender | .01 | .04* | .05** |
| | Academic attainment of father | .01 | .02 | .01 |
| | Academic attainment of mother | .06** | .00 | .04* |
| Personal variables | Residential area | .01 | .01 | -.00 |
| | Life satisfaction | .54*** | .46*** | .44*** |
| | Accomplishment value | .03 | .01 | .11* |
| Relational variables | Peer attachment | .21*** | .29*** | .30*** |
| | Relationship with teachers | .29 | .04* | .02 |
| | R ² | .46 | .40 | .45 |
| | F | 214.23*** | 162.92*** | 180.52*** |
| | Durbin-Watson | 1.94 | 2.02 | 2.03 |

* $p<.05$, ** $p<.01$, *** $p<.001$

Dependent variable: Self-esteem

을 미쳤으며, 교사관계의 경우 중3($\beta=.04$) 시기에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모든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만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고, 중학교 3학년 시기에만 교사관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애착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V.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을 실증적이고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데이터 중에서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와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수준이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따라 다른 지 알아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시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즐거움, 걱정없음, 행복감에 대한 것으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보다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높은 역 바이(V) 형태로 나타났다. 성취가치는 학교 공부가 청소년 자신의 미래에 가지는 의미에 대한 것으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서 낮아졌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중학교 1학년 시기보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중3 시기에 가장 높은 것은 고등학교 입시가 끝난 이후에 실시한 설문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삶의 만족도와 성취가치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낮아지는 것은 대학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교 공부에 대한 회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또래애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취가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별이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Park(2015)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며,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던 Lee(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종단적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중1($\beta=.57$), 중3($\beta=.48$), 고2($\beta=.47$)로 모든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애착도 중1($\beta=.15$), 중3($\beta=.19$), 고2($\beta=.19$)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성취가치는 고2($\beta=.12$)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모든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으며, 고2 시기에만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졌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애착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적, 친구 애착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Park(2015)의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자아효능감으로 나타난 Lee(2010)의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한 An, Yun과 Lim(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또래애착을 형성하며 성취경험을 제공하는 수업과 교육 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큰 중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즐겁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많이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중등 가정 부분의 첫 번째 성취기준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이 제시된 것은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또래 애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학교 저학년층에 집중된 긍정적인 또래관계형성 활동을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유기적으로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2009 개정 및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저학년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기의 성과 친구관계’를 또래 애착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성취가치가 높은 중학교 1학년 시기는 물론 성취가치의 영향력이 큰 고등학교 시기까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주는 교육활동을 가정과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정교육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 등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수업이나 교육과정 중에 다양한 성취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이를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낮고, 또래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정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남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재구성되고,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되어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정교육과정에서 남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기관에서 제공한 대규모 종단 연구의 측정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정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해석에서도 보다 가정교육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패널 조사의 제한된 문항으로 변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변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들

째,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 분석으로 종단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각 시점간의 평균 차이를 알 수는 있으나 시점간의 변화 경향이 나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알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하는 가정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n J-H, Yun Y-D, & Lim H-S (2016). The life satisfactio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2), 197-208.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umgardner, S. & Crothers, M. (2008). *Positive psychology*. Prentice Hall: Pearson Education. 안신호 역(2009). 긍정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Behavior Science Research Institute(Founded by Korea University)(2000). *Psychological test Handbook*. Seoul: Hagiisa.
- Cha J-W & Lee H-S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environment, peer environment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3), 53-67.
- Cho S-H & Kim H-S (2016).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on school life adaptation: Focusing on peer attachment.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5), 355-376.
- Cho S-Y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monitoring, the

- neglect and subjective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6), 59-84.
- Choi I-J & Oh S-Y (2010).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 of influential factors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Focused on parents' support,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Youth on Future*, 7(3), 95-113.
- Choi M-R & Lee I-H (2003).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363-383.
- Choi S-B (2014). Career education toward new society and education. Kyoyook Sarang, Gwangju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 Chun S-M (2014). Character strengths for adolescents and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Studies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1(2), 251-271.
- Chung M-S (2007). The effect of make-up attitude, self-esteem, and body satisfaction on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1), 35-45.
- Duclos, G. (2004). *L'estime de soi, un passeport pour la vie*. Éditions de l'Hôpital Sainte-Justine, 전광철 역(2007). 아이들의 행복에너지 자아존중감. 한울림.
- Han J-U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Heo G (2014). The effects of attainment value on achievement with focusing on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self-esteem. *Development of Thinking*, 10(2), 113-126.
- Heo J-Y & Yu Y-D (2012). Influences of childhood emotional trauma on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ed by self-esteem. *Family and Culture*, 24(1), 177-211.
- Hwang M-K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peer attachment of multi-culture children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Hyun J-M, Shin H-S & Lee S-J (2014).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on achievement motivation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6(3), 1-15.
- Kim E-K, Kim H-S, & Kim S-G (2013).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8), 303-324.
- Kim H-J & Jang H-S (2009). Body perception, attitude on weight-control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weight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2), 1-22.
- Kim J-H (2012).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Journal of Youth welfare*, 14(1), 41-62.
- Kim J-S & Kim Y-N (2009). Body perception, dietary attitude and self-esteem in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1), 123-139.
- Kim J-Y & Lee H-S (2010).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2(1), 21-32.
- Kim K-H (2013). Longitudinal study on parent attachment, self-esteem and anger of early adolescents: Application of potential growth model.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2), 295-317.
- Kim M-Y & Jung H-H (2015).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depression: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Child Education*, 24(3), 101-116.
- Kim N-Y (2012). *Influence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on 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ce : With social support as a moderating variab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 Kim S-Y, Lim J-Y, Kim S-W, Park S-H, Yu S-R, Choi j-Y, & Lee K-Y (2006). Youth development indicator survey 1. Seoul: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 Kim S-Y & Yun K-B (2016).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 Tests of the effects of facto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h changes. *Studies on Korean Youth*, 27(2), 271-296.
- Kim S-Y (2006).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internet activities, self-control,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Kim Y-C & Jung M-S (2012).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 51-70
- Koh H-Y (2012). *Parenting attitud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H-R & Lee Y-S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resilience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3(2), 467-486.
- Lee H-S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4), 75-83.
- Lee J-K & Kim S-G (2014). A study of features during adolescence influence on the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3), 21-41.
- Lee M-R (2003). Daily contextual variations in levels of adolescent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6(4), 193-209.
- Lee M-R (2005). Relationships of self-esteem with family-, friend-, school-, leisure-, and job-related variables in early adolescence: Focusing on positive and negative self evaluations, *Studies of Korean Youth* 42, 263-293.
- Lee S-H & Chun J-S (2012). The influence of stress on suicidal ideation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8, 173-202.
- Lee S-S (2010). *Study on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Lee Y-H (2014). *Relationship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y goal orientation, achievement values, achievement emotions and school happiness: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e, J-E, Auh S-Y, Jung I-K & Kim J-H (2012). The effects of body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the perceived obesity stress in adolescence in Seoul area : A latent model tes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4), 105-116.
- Lim S-K & Lee H-S (2007).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9(3), 169-183.
- Min B-S (1991). *The influence of school life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home economics-technology curriculum.
- Moon J-W (2012). The effect of obesity, depression, self esteem, body imag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3(2), 119~146.
- No B-R, Park S-R, Yi S-H, & Park H-J (2016). Trajectories of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their predictors : A multiple group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27(1), 149-177.
- Oh S-H (2010).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elf-esteem 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rk E-M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eachers,

- peers, mother, self-esteem, depression on school life adjustment. *Studies of Play Therapy*, 13(3), 75-88.
- Park J-W (2015). *The longitudinal profile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S-D (2005).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role expectation toward a father and actual role performance of father, and its relation with youth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Park S-H (2014). 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5(1), 17-3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gyeilbo (201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01/20140601000158.html>
- Seo E-K (2014). *Origin of happiness*. Paju: 21st Century Books.
- Shim S-J (2003). *The influence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Shin H-J & Choi H-J (2016). The mediation effect of physical health, parental affection, student-teacher relation, and peer attachment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3(1), 31-54.
- Shin M, Jeon S-H, & Yoo M-S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31-150.
- Suh J-H & Yoo A-J (2001). Adolescent friendships : Differences in function, structure, and satisfaction by internet and real life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4), 149-166.
- Statistics Korea (2011).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2016 Adolescent statistics*.
- Yang M-H (2000).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Yang S-K & Moon H-J (2012).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and peer attachmen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With a special focus on general adolescents and the adolescents of fathers in the militar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9(2), 115-130.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을 실증적이고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데이터 중에서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반복측정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수준이 각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둘째,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성취가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중1($\beta=.57$), 중3($\beta=.48$), 고2($\beta=.47$)로 모든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애착도 중1($\beta=.15$), 중3($\beta=.19$), 고2($\beta=.19$)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성취가치는 고2($\beta=.12$)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모든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으며, 고2 시기에는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졌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애착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래애착을 형성하는 수업과 활동이 보다 많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02월 17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03월 08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6월 27일